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차 란 회

전남대학교 / 학생

노 안 영†

전남대학교 / 교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BJW)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의 학교현장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82명(남 210명, 여172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은 매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인관계 유능성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구조모형 검증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차이 및 특성을 해석하고 상담 장면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실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사회적 관심, 대인관계 유능성, 학교생활적응

* 본 연구는 차란회(2019)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노안영,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사회과학대학 438호

Tel : 062-530-2656, E-mail : aynoh@chonnam.ac.kr

현대에 이르러 고속화되는 경제양극화와 가정환경의 변화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통계청, 2016)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와 가정형편에 따라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것에 차이를 느낀다고 보고했다.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존중받는다는 비율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어려운 학생사이에 22.8%의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와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과 학교에서의 정당성 경험은 청소년의 인성과 사회성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사회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적응을 돕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Dalbert & Stoeber, 2006; 정은교, 안도희, 2017a에서 재인용).

최근 상담학에서는 사회정의 상담이 제 5세력(Neukrug, 2013; Ratt, 2009)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정의 상담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인상담에서 나아가 사회 속에서 내담자의 적응과 행복을 위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체계와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학교생활에서 청소년이 유능감을 느끼고 환경의 불평등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도를 증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부적응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정당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적 개념이자 신념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설명하는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BJW)은 1960년대부터 해외의 교육 및 조직심리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개념이다(김은하, 김혜림, 2015; 김은하, 김수용, 2017). BJW는 타인에 대한 판단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BJW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부모나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면서 경험한 일에 의해 수정되기도 한다(김지경, 2002). 해외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1990년대부터 BJW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학교와 조직에서 적응 및 개인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김은하, 김혜림, 2015). BJW의 하위요인 중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은 개인이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분배와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은 개인이 ‘타인’들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며, 타인들이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분배와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Lipkus, 1991).

BJW와 관련된 학교현장 연구(Correia & Dalbert, 2007)에서는 BJW가 높은 학생들은 교사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학교에 대한 고민이 적고, 성적과 교사 및 또래관계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eter, Kloekner, Dalbert & Radant, 2012, 2013)에서 BJW는 교사에 대한 정당성 경험을 매개로 하여 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업성취 수준에 정적 영향을 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 & Dalbert, 2010). 슬로바키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Dzuka & Dalbert, 2002)는 BJW의 개인적인 믿음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더 나은 학업성취, 긍정적 정서, 자아개념에 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포르투갈의 중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orreia & Dalbert, 2007)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BJW이 강할수록 학교에서 고민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복지감과 정적 영향이 있었다.

국내의 BJW와 관련한 학교현장 연구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은교, 안도희, 2017a)에서는 교사에 대한 정당성 경험이 BJW와 청소년의 학교 참여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JW가 강한 학생은 부정적인 정서가 적고 개인의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 학교에 대한 흥미, 만족감과 관련된 정서적 참여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정은교, 안도희, 2017b). 또한 BJW가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만족감이 높아 더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Otto & Schmidt, 2007). BJW의 개인적인 믿음과 학교복지에 대한 연구(Donat, Peter, Dalbert & Kamble, 2016)에 따르면 학생의 BJW 수준이 강할수록 학교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적고, 긍정적인 태도, 학업자존감,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더 좋았다. BJW의 적응 기능은 학생의 복지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상관관을 보이며, 교사의 복지와 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zuka & Dalbert, 2007).

정은교와 안도희(2017b)는 BJW와 학교생활 참여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현장에서 주로 사용했던 Dalbert(1999)의 척도를 활용

(Correia & Dalbert, 2007; Dalbert & Stoerber, 2006; Donat et al., 2016; Donat, Dalbert & Kamble, 2014; Donat, Umlauf, Dalbert & Kamble, 2012; Kamble & Dalbert, 2012; Peter & Dalbert, 2010; Peter et al., 2012, 2013)하여 BJW의 긍정적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사회에서 성취와 노력을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정당함에 대한 신뢰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안녕감과 유연한 대처역할을 증진하여 부당한 상황에 대한 원활한 적응기능이 있다(정은교, 안도희, 2017b).

BJW의 개인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실험 보상에 대한 연구자의 약속이나 정부의 정책을 더욱 신뢰하며(Zuckermann & Gerbasi, 1977), 타인에 대해서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BJW의 개인적인 믿음이 약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낮고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친밀감이 약하다(Furnham, 2003). BJW의 개인적인 믿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과 BJW의 일반적인 믿음은 타인과 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엄격한 평가, 집단주의와 이타적인 태도를 예측한다(김은하 외, 2017). BJW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김지경, 2002)과 긍정적인 행동전략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도 자긍심과 고마움을 느낀다(Jiang, Chen, & Wang, 2017). 즉, BJW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자긍심과 감사함을 통해 집단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동기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Jiang et al., 2017).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개

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 집단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집단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김은하, 김수용, 2017). 이는 성격적이며 인지적인 변인인 BJW의 개인적인 믿음이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은하, 김수용, 2017; Begue, 2002), 대인신뢰가 높은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Puig, Erwin, Evenson & Beresford, 2015)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Adler(1921)는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적응이라고 보았으며, 학교를 가정보다 개인의 사회성을 더욱 요구하는 공간으로 보고 학생을 대하는 학교의 태도가 더욱 공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기인하고(Adler, 1964), 개인의 부적응은 사회적 관심을 통해 해결된다(Adler, 1957) 말한 그는 이 같은 공동체 의식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김필진, 2007, p. 24).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열등감 대신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삶에 대한 만족을 보인다(Ansbacher, 1991).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 의식으로서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송진영, 최영란, 2016; 홍나미, 2015). 공동체 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형임, 문영경, 2013). 사회적 관심의 개발은 개인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Crandall, 1980) 개인의 안녕감과 함께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선영운, 2014)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친구, 교사, 자치회 및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주요 대인관계를 맺는다. 개인의 정서적이며 인지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대인관계 유능성은 개인의 정신건강(배성만, 2015; 한나리, 이동귀, 2010)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요소(배미정, 조한익, 2014)이며 개인의 적응과 행복을 예측하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최선일, 차주환, 2016). BJW의 하위요인인 개인적인 믿음이 낮은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 지지와 같은 대인관계의 만족을 예측한다고 보고한다(Lucas, Firestone, & Lebreton, 2007). BJW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김지경, 2002). 또한 개인적인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고 관계적 만족도가 높으며, 개인내적인 스트레스가 적고 갈등에 대해 유연한 인지양식을 이용하여 대처한다(정은교, 안도희, 2017b; Otto & Schmidt, 2007). 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가지는 유연한 인지양식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향을 매개로 하여 적응과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배미정, 조한익, 2014)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개인의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배미정, 조한익, 2014),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인지·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는 ABC이론이라고 불리며, 이를 발달시킨 Ellis는 사건(Activating event)에 대한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Consequences)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그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비

합리적 신념이 감정과 역기능적 행동을 촉발한다고 보았으며, 합리적이고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삶을 수용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을 적응적이고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노인영, 2005). BJW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인지적 신념으로(김지경, 2002), 신념체계는 개인의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BJW가 높은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믿음과 이타적인 행동 및 태도를 보이며(김은하 외, 2017; Jiang et al., 2017),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은 협동과 기여로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인 사회적 관심(정민, 2013)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개인 심리학에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며 타인에게도 유용한 유형은 ‘사회적 유용형’으로 구별한다(정민, 노인영, 2002).

개인은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유익한 존재라고 지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다(김필진, 2007).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이 아닌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라는 지각을 가지고 편안한 태도를 통해(정민, 2013; Ansbacher, 1991)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유용한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된다(김천수, 2017; 김필진, 2007; Dreikurs, 1989).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Dreikurs(1989)는 인간관계에서 좋은 동료의 특징을 협동과 기여라고 말했다(김천수, 2017). 협동이란 타인과 만나고, 접촉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여란 보상보다는 집단과 전체의 일부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김천수, 2017).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역에서

협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 구성된 간의 갈등을 예방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기여의 태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유용함을 느끼고(정민, 노인영, 2002),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통한 대인관계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적응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배성만, 2015; 최선일, 차주환, 2016; 한나리, 이동귀, 2010). 즉, 높은 사회적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타인하게 유익하게 인식하여 사회적 유용형으로 기능하며(김필진, 2007),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집단에 대한 이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적 유용형은 개인이 지각하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경로모형이 유의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BJW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2.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5.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병렬 매개하는 경쟁모형보다 더 우수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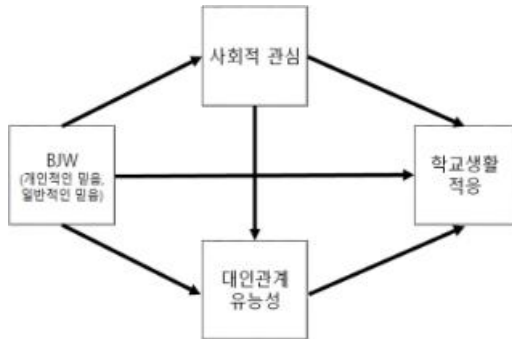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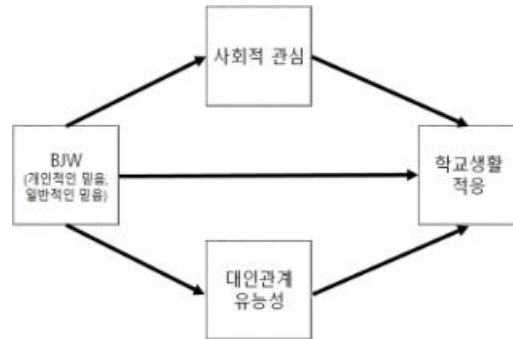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형일 것이다.

연구모형은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순차적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편, BJW의 하위요인인 개인적인 믿음이 삶의 만족과 대인 관계적 만족을 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일반적인 믿음이 타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김은하 외, 2017; 정은교, 안도희, 2017b)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BJW의 각 하위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병렬 매개하는 경쟁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1040198-180426-HR-039-01)의 승인을 받은 후, 윤리규정에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강진, 곡성,

해남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나주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동의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설문 404명중 불성실 및 누락 응답이 포함된 참가자(22부)를 제외한 38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과 학교급은 전체 382명중 일반계고의 남성이 89명(34.5%), 여성이 169명(65.5%), 특성화고의 경우 남성이 121명(97.6%), 여성이 3명(2.4%)이었다.

측정 도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 청소년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는 Dalbert (1999)가 개발한 척도를 정은교와 안도희 (2017b)가 번안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BJW를 측정하는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6점 Likert척도를 사용한다. 하위요인은 두 가지로 ‘개인적인 믿음’이 6문항, ‘일반적인 믿음’이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믿음’의 예는 ‘내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체로 공정하다’와 같다. ‘일반적인 믿음’의 예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와 같다. BJW의 점수 분포는 11점에서 6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BJW의 수준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는 ‘개인적 믿음’이 .87, ‘일반적 믿음’이 .81, 전체 척도는 .88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심 척도(Social Interest Scale: SIS)

사회적 관심 척도는 정민의 연구(2013)에서 개발된 것으로, 총 15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행동’이 8문항과 ‘태도’가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행동’의 예는 ‘나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 반응한다’와 같다. ‘태도’의 예는 ‘나는 이해심이 많다’와 같다. 사회적 관심의 점수 분포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는 ‘행동’이 .90, ‘태도’가 .89, 전체 척도는 .93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hrmester(1988)가 제작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를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번안하고 수정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형성’의 예는 ‘알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과 같다. ‘권리주장’의 예는 ‘친구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타인배려’의 예는 ‘친한 친구의 기분이 안좋을 때 친구를 격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갈등관리’의 예는 ‘친한 친구와 싸울 때 화가 난 감정을 접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개방’의 예는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척도의 전체 문항은 총 31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점수 분포는 31점에서 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는 ‘관계형성’이 .92, ‘권리주장’은 .90, ‘타인배려’가 .88, ‘갈등관리’는 .87, ‘자기개방’이 .79였으며 전체 척도는 .94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 단축형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중·고등학교의 학교 적응에 대하여 김정남(2013)의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의 예는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다. ‘심리적 안정성’은 역채점 문항으로 사용되었으며, 예는 ‘나는 매우 외롭다’와 같다. ‘사회관계’의 예는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친구가 있다’와 같다. ‘학교생활’의 예는 ‘나는 학교교직을 잘 지키고 있다’와 같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의 분포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는 ‘학업’이 .88, ‘심리적 안정성’은 .80, ‘사회관계’가 .81, ‘학교생활’이 .80, 전체 척도의 경우 .87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PSS 20.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첫

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 통계를 분석하고, 역채점 문항 계산 후 결측값(0.12%)은 계열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이후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를 확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고, Pearson's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 2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별적인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모형에 의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이어서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한 지수는 χ^2 , RMSEA, NFI, CFI, PGFI, PNFI, PCFI, AIC이다.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수준으로 보고, NFI와 CFI는 .90이상으로 값이 클수록 연구적합도

가 높으며, 모형간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간결적합도 지수인 PGFI, PNFI, PCFI는 값이 더 높은 쪽, AIC는 값이 낮은 쪽을 더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1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포함관계(nested)이므로, 차이검정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결 과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사용된 측정 변인간의 기술통계를 알아보고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BJW는 사회적 관심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r=.446, p<.001$, 대인관계 유능성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r=.373, p<.001$, 학교생활 적응과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N=382)

연구변인	1	2	3	4
1. BJW	-			
2. 사회적 관심	.446***	-		
3. 대인관계 유능성	.373***	.710***	-	
4. 학교생활적응	.537***	.552***	.559***	-
평균	3.771	3.814	3.398	3.495
표준편차	0.858	0.632	0.584	0.573
왜도	0.135	-0.098	0.350	0.046
첨도	0.127	-0.005	0.393	0.097
VIF	1.259	2.186	2.033	-

주. *** $p<.001$.

$r=.537, p<.001$. 사회적 관심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710, p<.001$, 학교생활적응과도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r=.552, p<.001$. 대인관계 유능성과 학교생활적응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59, p<.001$. 또한 연구변인간의 상관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산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지수를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산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한 왜도값과 첨도값이 모두 절대값 1이하로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이하여야 한다 (West, Finch, & Curran, 1995)는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 변인이 적절하게 설명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표 2에 나타내었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59)=251.495, p<.001, RMSEA=.093, NFI=.894, CFI=.916$ 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이후 각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BJW 2개 요인이 .655-.833, 사회적 관심이 2개 요인이 .821-.917, 대인관계 유능성의 5개 요인이 .539-.831, 학교생활적응의 4개 요인이 .280-.811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요인 중 심리적 안정성이 .28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안정성의 문항이 다른 요인과 달리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다른 요인과의 상관이 낮게 나타났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382)

	변인	B	β	SE _b	t
BJW	개인적인 믿음	1.149	.833	0.112	10.237***
	일반적인 믿음	1.000	.655	0.000	
사회적 관심	행동	1.135	.917	0.058	19.573***
	태도	1.000	.821	0.000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형성	1.088	.787	0.083	13.027***
	권리주장	0.745	.539	0.079	9.438***
	타인배려	0.962	.831	0.071	13.554***
	갈등관리	0.717	.606	0.068	10.473***
	자기개방	1.000	.658	0.000	
학교생활적응	학업	0.857	.635	0.071	12.030***
	심리적 안전성	0.437	.280	0.085	5.114***
	사회관계	0.987	.811	0.064	15.496***
	학교생활	1.000	.783	0.000	

주. *** $p<.001$.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의 요인에 따라 심리적 안정성을 포함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주요 하위요인인 3개의 잠재변인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측정변인을 적합하게 구인하였다고 보았다.

구조모형 검증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59)=251.495$, $RMSEA=.093$, $NFI=.894$, $CFI=.916$ 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차이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nested관계에 있으므로

차이검정을 통해 직접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2 의 감소폭이 이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86.896 > \chi^2_{2,05}(1)=3.841$, Δ 강각=1. 추가로 간결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경쟁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의 $PGFI=.592$, $PNFI=.676$, $PCFI=.693$ 으로 적합도가 더 높고, $AIC=315.495$ 로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는 연구모형이,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로 병렬 매개하는 경쟁모형보다 더 나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연구모형의 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BJW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계

표 3. 전체 구조모형의 적합도(N=382)

	χ^2	df	p	RMSEA	NFI	CFI	PGFI	PNFI	PCFI	AIC
연구모형	251.495	59	.000	.093	.894	.916	.592	.676	.693	315.495
경쟁모형	338.391	60	.000	.110	.857	.879	.582	.659	.676	400.391
차이검정	86.896	1	.000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382)

경로	B	β	SE_b	t
BJW→학교생활적응	0.399	.538	0.059	6.762***
BJW→사회적 관심	0.507	.548	0.063	8.098***
BJW→대인관계 유능성	0.000	.000	0.049	-0.009***
사회적 관심→학교생활적응	-0.076	-.095	0.104	-0.732***
사회적 관심→대인관계 유능성	0.806	.863	0.073	11.000***
대인관계 유능성→학교생활적응	0.484	.563	0.112	4.341***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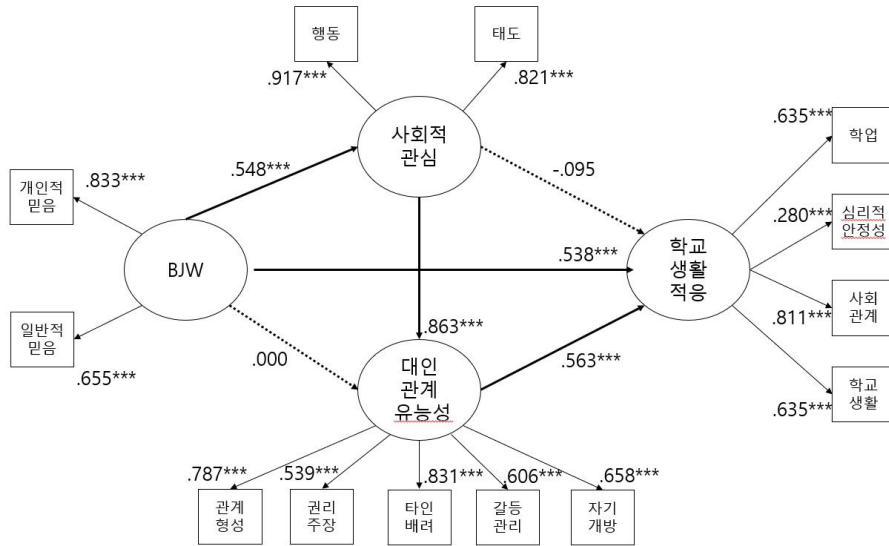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부분매개)의 표준화 계수. *** $p < .001$.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538, p < .001$). 이어서 BJW에서 사회적 관심으로 가는 경로 계수가 유의하였다($\beta = .548, p < .001$). 그러나 BJW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beta = .000, ns$), 사회적 관심이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95, ns$). 한편, 사회적 관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고($\beta = .863, p < .001$), 대인관계 유능성이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beta = .563, p < .001$). 종합하면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BJW에서 대인관계 유능성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과 같다.

간접효과 검증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별 간접효과들을

표 5. 매개효과 검증(N=382)

경로	B	SE _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BJW→사회적 관심→학교생활적응	0.056**	0.021	0.017	0.098
BJW→대인관계 유능성→학교생활적응	0.014	0.010	-0.004	0.034
BJW→사회적 관심→대인관계 유능성→학교생활적응	0.060***	0.016	0.031	0.098

주. ** $p < .05$, *** $p < .001$.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인을 생성하고 재구성된 각 매개 경로를 계산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계산된 경로는 Shrout와 Bolger(2002)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배병렬, 2011). 또한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고 그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은 5,000번 표집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그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5% 유의도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alpha=.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 5에서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을 거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95% CI[0.018, 0.100]. 즉,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의 매개 효과가 있었으며($B=.056, p<.05$),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한편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95% CI[-0.002, 0.036].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B=.014, ns$), 이에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BJW와 학교생활적응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거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를 보였다, 95% CI[0.031, 0.098]. 즉, BJW가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

표 6.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N=382$)

	직접효과	간접효과(95%)		총효과
		하한	상한	
BJW→학교생활적응	.538**	.114	.215**	.753**
BJW→사회적 관심	.548**			.548**
BJW→대인관계 유능성	.000	.353	.474**	.473**
사회적 관심→학교생활적응	-.095	.224	.487**	.392**
사회적 관심→대인관계 유능성	.863**			.863**
대인관계 유능성→학교생활적응	.563**			.563**

주. ** $p < .05$.

능성을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B=.060$, $p<.001$),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한편 사회적 관심의 단순매개경로 분석과 상이하게 구조모형에서 사회적 관심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의 단순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공식을 이용하여 추가 검증한 결과, $z=4.515$, $p<.001$ 로 임계치값 1.96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관심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직접효과 보다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를 통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더욱 큼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최종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BJW(.753)이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563)과 사회적 관심(.392)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BJW가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서 영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를 보였다. 즉, BJW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38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BJW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경로를 통하여 설명함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BJW는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는 BJW가 개인의 안녕감과 학업성취, 대인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orreia & Dalbert, 2007; Donat et al., 2016; Kamble & Dalbert, 2012; Peter et al., 2012, 2013).

둘째,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BJW의 개인적인 믿음은 대인신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과 연결된다(김은하, 김수용, 2017; Begue, 2002; Puig et al., 2015). BJW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자긍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동기가 증가되며(Jiang et al., 2017), 증진된 사회적 관심은 개인의 안녕감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선영운, 2014; 송진영, 최영란, 2016; 최형임, 문영경, 2013; 홍나미, 2015). BJW의 일반적인 믿음은 외집단에 대한 혹독한 평가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집단주의와 이타주의 및 약자에 대한 보호적 태도와 관련된(Lucas, Zhdanova, & Alexander, 2011; 김은하 외, 2017). 개인은 자신의 BJW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자기편향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Lerner & Simmons, 1966: 정은고, 안도희, 2017a에서 재인용) 즉, BJW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들이 처한 상황

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유연하게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 부여에 원동력을 가진다(Dalbert, 2009; 정은교, 안도희, 2017a에서 재인용). 따라서 BJW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하고 개발하는 집단원들의 상호작용 및 격려 훈련(노안영 등, 2005)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인관계 유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유능성과 만족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주요 예측요인이라는 선행연구를 재확인하였다(배미정, 조한익, 2014). 교사와 친구를 비롯한 주요한 타인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과 원활한 소통은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사회적 성숙과 함께 지적성숙에도 도움을 준다(최지은, 신용주, 2003; 한나리, 이동귀, 2010).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외부적인 상황판단을 통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예측하여(Lucas et al., 2011; 김은하 외, 2017) BJW가 사회적 관심에 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타인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스스로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교육현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데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보다 강력하다는 주장에 따라 개인적인 믿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Dalbert, 1999; Dzuka & Dalbert, 2002; Kamble & Dalbert, 2012; 정은교, 안도희,

2017b에서 재인용). 선행연구에서는 BJW의 개인적인 믿음은 낮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을 예측하고, BJW의 일반적인 믿음은 타인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태도와 관련하여 상이한 영역을 측정한다고 보았다(김은하 외, 2017; Khera, Harvey & Callan, 2014; Lucas et al., 2007). 따라서 향후에는 BJW의 하위요인인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구분하여 BJW가 학교생활적응에 가지는 효과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관심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순차적인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개인일수록 협동과 기여를 통해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대인관계 영역에서 유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천수, 2017; 김필진, 2007). BJW가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둘러싼 세상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이고, 대인관계에서 존재가치와 유능성 발휘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데 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BJW의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사회적 관심을 통한 협동과 기여하는 태도로 환경의 불평등적인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감을 증진시킨다면 건강하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담 장면에서 본 연구의 실용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고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관여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고통해소라는 접근에서 더 나아가 내담자가 자신이 속한 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임은미, 여영기, 2015). 이는 학교 현장에서 부적응을 겪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그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체계에 대한 인식, 불편감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BJW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수준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세상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및 상담의 동기와 효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높은 BJW 수준을 지닌 여성이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성차별 경험에서 더 많은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는다는 연구(김은하, 김경희, 박한솔, 정보현, 2018) 결과와 같이 개인이 지닌 신념과 불일치하는 경험은 내적인 만족도를 낮추고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BJW를 가진 청소년이 상담 장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나는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와 같은 인지적 신념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감의 회복,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낮은 BJW 수준을 지닌 사람의 경우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경험을 통하여, 대인 불신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BJW가 낮은 수준의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삶에 대한 통제력과 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으며(김은하, 정보현, 2018), 사회정의 상담의 접근에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술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방법으로 욕구를 달성하도록 옹호하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임은미, 여영기, 2015). BJW에 대

한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지각하는 신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다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BJW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성격 특질이자 신념으로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렵지만(Lucas et al., 2007), 성장하면서 경험한 일에 의해 수정되기도 한다(김지경, 2002). 또한 후천적인 학습이 가능한 사회적 관심(김필진, 2007)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BJW 중 개인적 믿음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 대인 신뢰감과 친밀감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낮다(Furnham, 2003).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대인관계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및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세상과 소속 집단에 대한 불신감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에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당위성은 비합리적인 신념의 뿌리이며, 개인의 왜곡된 개념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역기능적인 행동과 부적응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노인영, 2005, p. 374). 따라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인 BJW를 활용한 상담에서 부적절한 사고패턴을 바꾸는 CBT의 치료기법을 접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의미 있는 타인들과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신뢰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청소년의 높은 활동참여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요인이며(송진영, 최영관, 2016), 적극적으로 소속된 집단에 참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발달요인이다. 즉, 학교생활에서 청소년이 유능감을 느끼고 환경의 불평등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발달과업을 이루고,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남의 일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의 해석에서 성별과 학교계열의 수가 균등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에서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화를 위한 다양한 성별과 지역, 학교계열 대상자로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른 BJW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BJW와 성별, 학교특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교계열과 급에 따라 BJW와 사회적 관심, 대인관계 유능성, 학교생활적응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조사 연구로 연구변인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종단연구를 통한 청소년의 연령발달에 따른 BJW수준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배경과 같은 환경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 및 매개효과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여 본 연구는 BJW가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변인임을 착안하여,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양상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학문적 함의를 갖는다. 존 듀이(Dewey, 1938: 이성호, 2003에서 재인용)는 학교를 사회와 별개의 속성과 체계를 지닌 것이 아닌 작은 사회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시민성 함양으로 보았으며,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BJW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향을 확인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소속감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은하, 김경희, 박한솔, 정보현 (2018). 성차별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09-429.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9(3), 689-710.
- 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1-22.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

- 효과. 상담학연구, 16, 39-53.
-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 김정남 (2013).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97-517.
- 김지경 (2002).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1-12.
- 김천수 (2017). 개인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관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필진 (2007).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과 상담. 서울: 학지사.
- 노안영 (2005).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종, 강영신, 오명자 (2005). Adler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 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6), 2417-2435.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배성만 (2015). 한국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6(3), 51-65.
- 선영운 (2014).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 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525-545.
- 송진영, 최영란 (2016).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2(5), 179-207.
- 이성호 (2003). 존 듀이의 사회 철학: 민주주의, 학교, 그리고 자본주의. 아시아교육연구, 4(2), 215-236.
- 이학식, 임지훈 (2015).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2. 서울: 집현재.
- 임은미, 여영기 (2015). 사회정의 상담: 저출산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새로운 방향. 교육종합연구, 13(3), 141-161.
- 정민 (2013). 사회심 관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4(4), 2571-2583.
- 정민, 노안영 (2002). 생활양식과 대학생 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75-387.
- 정은교, 안도희 (2017a). 고등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교사 정당성 경험과 교사-학생 관계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1(2), 215-237.
- 정은교, 안도희 (2017b). 청소년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6), 449-470.
- 최선일, 차주환 (2016).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15(4), 57-79.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최형임,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http://kostat.go.kr>에서 검색.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홍나미 (2015). 청소년 봉사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44, 157-180.
- Adler, A. (1957). The progress of mankind.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13, 9-13.
- Adler, A. (1964). *Social interest: A challenge to mankind*. New York: Capricorn Books.
- Ansbacher, H. L. (1991). The concept of social interest.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4, 28-46.
- Begue, L. (2002). Beliefs in justice and faith in people: Just world, religiosity and interpersonal tru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3), 375-382.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
- Correia I., & Dalbert C. (2007). Belief in a just world, justice concerns, and well-being at Portuguese schoo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4), 421-437.
- Crandall, J. (1980). Social interest, extreme response style, and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1), 82-89.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2009). Belief in a just world.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288-297.
- Dalbert, C., & Stoeber, J. (2006).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domain-specific beliefs about justice at school and in the family: A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 200-207.
- Donat, M., Dalbert, C., & Kamble, S. V. (2014). Adolescents' cheating and delinquent behavior from a justice-psychological perspective: The role of teacher justi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9(4), 635-651.
- Donat, M., Umlauf, S., Dalbert, C., & Kamble, S. V. (2012). Belief in a just world, teacher justice, and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8(3), 185-193.
- Donat, M., Peter, F., Dalbert, C., & Kamble, S. V. (2016). The meaning of students'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for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chool-specific well-being.
- Dreikurs, R. (1989). *Fundamentals of Adlerian psychology*. Chicago, IL: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Dzuka J., & Dalbert, C. (2002).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of slovak unemployed adolescents: The impact of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32-757.
- Dzuka J., & Dalbert, C. (2007). Stud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Teachers' well-being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European Psychologist*,

- 12(4), 253-260.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Jiang, H., Chen, G., & Wang, T. (2017).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internet altruistic behavior in a sample of chinese undergraduates: Multiple mediating roles of gratitude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93-498.
- Kamble, S. V., & Dalbert, C. (2012). Belief in a just world and wellbeing in Indi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4), 269-278.
- Khera, M. L., Harvey, A. J., & Callan, M. J. (2014). Beliefs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refugees among refugee workers. *Social Justice Research*, 27(4), 432-443.
- Lerner, M. J., & Simmons, C. H. (1966). The observer's reaction to the innocent victim: Compassion or rej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03-210.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1), 1171-1178.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Neukrug, E. (2013). *The world of the counselor: An introduction to the counseling profession*. Cengage Learning.
- Otto K., & Schmidt S. (2007). Dealing with stress in the workplace: Compensatory effects of belief in a just world. *European Psychologist*, 12(4), 272-282.
- Peter, F., & Dalbert, C. (2010). Do my teachers treat me justly? Implications of students' justice experience for class climate experie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4), 297-305.
- Peter F., Kloeckner N., Dalbert C., & Radant M. (2012). Belief in a just world, teacher justice, and student achievement: A multilevel stud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1), 55-63.
- Peter, F., Dalbert, C., Kloeckner, N., & Radant, M. (2013).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experience of teacher justice, and school distress in different class contex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4), 1221-1235.
- Puig, V. I., Erwin, E. J., Evenson, T. L., & Beresford, M. (2015). "It's a two-way stress.": Examining how trust, diversity, and

- contradiction influence a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9, 187-201.
- Ratt, M. J. (2009). Social justice counseling: Toward the development of a 'fifth force' among counseling paradigm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8, 160-17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 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 H.,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Thousand Oaks, 56-75.
- Zuckerman, M., & Gerbasi, K. C. (1977). Belief in infernal control or belief in a just world: The use and misuse of the IE scale in prediction of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45(3), 356-378.

원고접수일 : 2020. 01. 31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3. 23
게재결정일 : 2020. 03. 30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Interes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School Adjustment

Ran Hee Cha

An-Young N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While Belief in a Just World (BJW) is an influential variable in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adaptation,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is top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interes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JW and school adjustmen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BJW on school adjustment, survey data from 382 high school students (210 males, 172 females)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interes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JW and school adjustment, whereas interpersonal competence did not. Additionally,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social interes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mediated sequentially in the process of BJW affecting school adjustment. The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for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for the use of BJW in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social interest, interpersonal competence, school adjustment